

국제관계학에서의 감정 (예비)이론화 :

집단감정은 어떻게 유발되는가?*

은용수**

논문 요약

본 논문은 국제관계학(IR)에서의 감정연구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론화(theorization)를 수행한다. 물론 소논문이라는 짧은 글에서 이론설립을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론화를 위한 ‘예비’단계로써 이론적 개념, 가정, 그리고 인과적 명제 도출을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우선 감정의 이론화를 가로막았던 인식론적 장애물을 파악하고 이들의 논리가 얼마나 타당한지 검토한다. 또한, IR에서 감정이론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개별사례의 특수성을 넘어 ‘일반화’된 집단감정의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논한다. 이를 위해 사회심리학 이론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연구를 원용하여 집단감정 발생 메커니즘과 탈개인화(depersonalization) 과정이 밀접한 양(positive)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주장한다. 나아가 이러한 상관관계를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좀더 세밀하게 보완한다. 우선, IR의 감정이론 설립을 위해서는 탈개인화와 함께 탈개별 집단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지적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 ‘전체’ 수준에서 공유되고 있는 국가정체성을 시공간적으로 재현(represent)하는 상징물(symbols)이나 서사(narratives)의 표상(表象)적 활성화 여부가 집단감정 발생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논증한다. 물론 국가정체성은 다양한 범주들로 구성되며 이들이 발휘하는 집단결속력은 결코 등가적이지 않다. 따라서 IR에서 감정이론은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환기시키고 사회적 결속력을 담보하는 능력이 가장 큰 ‘우위’(주인) 정체성과 이것의 ‘표상적’ 활성화를 핵심변수로 삼을 필요가 있다. 상기한 논의를 모두 종합하여 본 논문은 집단감정이 국가/사회 차원에서 유발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집단감정의 발생 정도에 인과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변수들을 도출하고, 이를 이론적 가정(명제)으로 만들어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다루지 못했거나 혹은 좀 더 확장될 필요가 있는 남은 연구과제들을 상술하는 것으로 본고를 마무리 한다.

주제어: 감정, 국제관계학(IR), 이론화, 집단감정, 탈개인화(depersonalization), ‘우위(주인)’ 정체성, 정체성의 표상적(시공간적) 활성화

* 본 논문의 심사를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 감정연구에 관심을 갖고 질문을 던지는 학생들과 제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물론 이 글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남아 있고 그것은 온전히 저자의 몫이다. 본 논문은 한양대학교 전문학술논문지원사업(과제번호: 201700000003118)의 지원과 한국연구재단(NRF-2015S1A3A2046903)의 지원을 받은 연구임을 밝힌다.

** 한양대학교

I. 감정연구(emotion studies): 감정과 이성의 이분법을 넘어

본 논문은 감정의 이론화를 국제관계적 맥락에서 시도한다. 즉, 감정연구의 필요성을 전제하면서도 기존연구 분석을 중점으로 하는 시론적/문헌검토적 성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론화’를 위한 논증 작업을 수행한다.¹ 물론 소논문이라는 짧은 글(공간)에서 이론설립을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론화를 위한 ‘예비’단계로써 개념정의, 인과적 메커니즘 분석, 그리고 이론적 가정명제의 도출을 주요한 논의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시작으로써 우선 왜 감정의 이론적 연구가 그간 미흡했는지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감정의 이론적 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후술에서 자세히 논의되듯, 감정의 이론화(이론설립)는 매우 복잡한 논리적, 인식론적, 존재론적 문제들을 해결해야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기저에는 감정에 대한 관심 자체가 국제관계학(IR)에서 그간 매우 부족했던 사실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왜 관련 연구와 관심이 부족했을까? 그 연원을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 국제정치를 연구하는 IR이 서구중심적이라는 사실, 따라서 서양사상을 그것의 뿌리로 삼고 있다는 사실과 마주하게 된다. 물론 서양사상의 진폭은 넓고 깊지만, IR이 감정이라는 문제를 이해하는 입장은 서양근대철학, 그 가운데서도 데카르트의 사상에 깊숙이 묻어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질의 세계가 각각 따로 존재한다는 “이원론”을 주창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진 서양근대 철학자이다. 데카르트는 그의 유명한 저서 『철학에 대한 성찰』에서 회의(懷疑)논변을 통해 정신을 이성, 즉 사유하는 능력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인간의 존재와 삶의 확실한 토대로 간주한다(윤선구 2004). 나아가 정신(이성)과 물질은 각각 존재하지만 그 작동원리는 같고 따라서 우리의 사유(이성)를 통해 물질(자연)을 이해할 수 있다는 “동형성”(isomorphism) 논리를 펼친다(이종주 2015; 김영래 2013). 이른바 “고기도 에르고 슴”은 데카르트의 이러한 이성중심주의를 함축하고 있는 주장인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데카르트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지를 묻는 당대 엘리자베스 공주의 편지에 다음과 같이 답한다. “감정이나 정념적 욕구로 인해 길을 잃지 않고 이성이 원하는 바를 실행하겠다는 굳건하고 영원한 의지를 유지해야”한다(김선영 2014). 물론 데카르트가 설파한 이성중심주의, “방법적 회의”나 “이원론”은 후대 철학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경험주의 철학에 기반하여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혹은 “정념”)이 인간의 사고와 판단, 도덕적 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 스피노자, 흄, 루소, 아담 스미스 등이 최근 서구학계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Jeffery 2014). 문제는 당위적 측면에서의 이성중심주의, 그리고 설명적 측면에서의 이성 vs. 감정이라는 이원론이 최근까지도 IR을 포함하는 사회과학전반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데

¹ 지금까지 IR에서 진행된 감정연구에 대한 문헌검토는 이미 상당히 이뤄졌다. 많은 문헌들 중에서도 최근의 저술로써 다음을 참조할 것: Mercer 2010; Fierke 2012; Hutchison and Bleiker 2014; Ariffin et al. 2016; 용채영·은용수 2017. 이처럼 기존연구 검토와 문헌분석을 제공해주고 있는 저술은 이미 충분하기에 이를 또다시 본고에서 정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현 시점에서는 본격적인 이론화 작업이 더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있다.²

사회학을 예로 들어보자. 김홍중(2013, 7)에 따르면, 파슨스의 실증주의 사회이론이 패권적 위치를 점하게 된 1930년 이래부터 감정은 사회현상과 행동의 “설명의 대상으로도, 원인으로도 평가 받지 못한 채, 이론적 잔여범주”로 남아 있었다. 파슨스는 사회적 행위의 제도규범적 성격을 강조하였고 사회제도의 작동에서 “감정중립성”을 중시함으로써 감정을 “사적 친밀성의 일부로 유폐”시킨 것이다.³ 문제의 심각성은 IR에서 더욱 크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감정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저술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나 감정의 ‘이론적’ 탐구는 더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여전히 데카르트의 세계관 속에 머물면서 이성과 합리성을 핵심전제로 하는 이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나아가 이들은 이성과 감정을 구별짓듯, 사실과 가치를 구별을 통해 “과학”을 추구하려는 실증주의적 인식론을 따르고 있다. 신현실주의, 신자유주의, 구조적(웬트류의) 구성주의라는 IR 주류이론들을 예로 보자. 이들은 국가를 하나의 통합된 합리적 행위자로 가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자가 실증적으로 환원될 수 있는 국제체제적 압력이나 구조적 요인들(물리적 힘의 배분상태, 국제제도나 상호의존성, 국제사회규범 등)에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국가의 행동패턴을 설명하려 한다. 나아가 국가지도자의 합리적 정책결정을 방해하는 원인들, 예를 들어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나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와 같은 심리/감정적 동인에서 비롯된 상대국에 대한 “오인”(misperception)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신중하고 이성적인 정책판단을 강조한다. 즉, 이성과 감정의 이분법적 구별을 기본전제(basic premise)로 하는 이론이나 분석, 그리고 감정을 이성적 통제와 계도가 필요한 대상(object)으로 여기는 인식은 국제정치연구 전반에 걸쳐 퍼져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IR에서의 감정연구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미개척된 영역으로 남아 있었으며, 지금까지도 이론화의 대상에서 배제된 채 개별사례연구가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Ariffin et al. 2016).

하지만, ‘과학’을 추구하는 IR학계에서 포착되는 이와 같은 연구경향은 말 그대로 얼마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 것일까?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렇다고 볼 수 있었다. 이성 vs. 감정의 구분은 인문사회분야를 넘어 초기의 전통적 뇌과학에서도 받아들여졌던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이성과 감정을 담당하는 뇌신경계(영역)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한다는 이른바 영역주의 가설(locationist hypothesis)은 70년대까지만 해도 뇌과학계에서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 폴 맥클린(Paul MacLean)의 연구가 이를 대표하는데, 그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세 개의 하부뇌(sub-brains)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각각 인류의 오랜 역사에서 서로 다른 진화의 시대를 대표하는 동물들의 뇌와 매우 비슷한 것

²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문제는 ‘IR이 서구중심적이다’라는 사실보다는(동서양의 지역구분을 떠나) 이성 vs. 감정이라는 이분법과 합리주의가 IR 전반에서 지속되는데 있다. 이는(역시 동서양의 지역구분을 떠나) IR이 인식론적 측면에서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려는(혹은 구분할 수 있다는) 실증주의적 과학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현실에서도 잘 들어난다. 좀 더 자세한 논의는 Eun 2016 참조.

³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1980년대를 기점으로 변화를 맞는다. 당시 사회학 이론의 다원화가 이뤄지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사회학에서의 “감정적 전회”를 언급할 정도로 많은 감정관련 연구들과 개념들(예컨대, “감정규칙”, “감정자본주의”, “감정에너지” 등)이 등장했다. 예컨대 Illouz 2004; Hochschild 1983; Denzin 1984; Collins 1993; Clough and Halley 2007 등 참조.

로 여겨졌다. 가장 아래 위치한 하부뇌는 파충류의 뇌(reptilian brain)와 유사한 구조이고, 이것은 육체(말초)적 기능(예를 들어 먹기, 방어하기, 싸우기, 도망치기 등)을 담당한다. 그 위에 원시 포유류의 뇌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를 변연계 뇌(limbic brain)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편도체, 해마가 존재하며 이들은 감정의 표현, 말/음성을 통한 상호소통, 사고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가장 마지막으로 진화된 뇌구조가 신피질(neocortex)이라 불리는 현대 포유류의 뇌이며, 이는 말하기뿐만 아니라 문자의 사용(쓰기), 계획세우기, 논리, 추론 등의 능력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MacLean 1990).⁴ 이러한 맥클린의 삼중구조 뇌모델(triune brain model)은 서두에서 소개한 데카르트의 주장과 잘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둘 다, 이성과 감정을 존재론적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감정을 기능적으로 하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데카르트의 오류”(Descartes’ Error)를 논증하는 과학적 연구들이 근래에 들어 체계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연구가 바로 다마지오(Damasio)의 연구다. 다마지오는 감정유발, 감정조절, 감정적 행위를 담당하는 뇌조직인 전두엽과 변연계가 손상된 환자의 예를 통해 감정의 손상이 의사결정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두엽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무감정”(disaffection) 상태가 된 환자는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의사결정과 판단력에 큰 결함을 보인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다마지오의 발견은 감정이 이성적 판단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이 이성적 판단에 도움을 주고,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Damasio 1994; Bechara et al. 2000).

최근의 뇌과학 연구 역시 다마지오의 발견, 즉 “데카르트의 오류”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극도로 혐오스러운 영상을 틀어주고 스트레스에 노출시키면,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경조절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 분비가 늘면서 뇌 전반의 활동 패턴이 변하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다(Takahashi et al. 2008). 노르에피네프린이 뇌 ‘전반’의 반응과 활동패턴 양식을 조절한다는 사실은 뇌에서 감정과 관련된 기능, 이성과 관련한 기능이 영역별로 혹은 이분법적으로 구별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기억은 이성과 관련된 고등한 기능으로 여겨졌지만, 변연계의 대표적인 영역인 해마가 기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표적인 예가 카그라스 증후군(capgras syndrome) 환자들로부터 발견된다(Matuszak and Parra 2011; Johnston and Malabou 2013, 59). 이들은 기억이나 외형의 인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 한다. 이들 환자들을 조사해보고 발견한 사실은 어떤 이유로든지 감정을 조정하는 변연계 뇌기능이 손상되어 동일한 사람에게서 다른 감정을 갖게 된 것이었다. 분명 동일한 외형(모습)을 갖고 있는 지인이지만, 그들에게서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이들을 알아보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인간이 타인을 인지할 때 “시각적”(visual) 모습이 자신의 기억과 완벽히 들어맞는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감정적 서명”(emotional signature)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인지시각적 표상을 거짓이라고

4 이에 대한 좀 더 최근의 해석과 포괄적인 설명은 Baars and Gage 2010 (특히 13장) 참조.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 뇌과학계의 설명이다(Solomon 2004; Noggle et al. 2012; Johnston and Malabou 2013).

이와 같은 뇌과학 연구들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이성과 감정의 이분법적 구분에 관한 과학적 근거는 미약하며, 나아가 감정이 인지판단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버지니아 휴즈(Virginia Hughes)의 말처럼, “감정은 이성의 적이 아니며”(Hughes 2014) 오히려 감정은 이성과 상호보완적 혹은 상호구성적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제정치연구자들이 감정을 이론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근거가 타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러한 과학적 연구의 발견은 감정의 개념정의에 있어서도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II. 감정의 개념: 지각주의와 인지주의의 이분법을 넘어

감정은 무엇인가? 물론 이에 대한 답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감정과 유사한 다른 개념들(기분, 태도, 욕망 등)과의 개념적 차이도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Ariffin et al. 2016, 2-4). 하지만 감정의 복잡한 개념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두 개의 큰 지형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상기한 서양근대철학의 전형적 입장과 고전적 뇌과학에서 추종한 감정 vs. 이성(판단)의 이분법적 구별과도 궤를 같이 하는 이해방식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지각주의’ 감정론이 개념지도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감정을 신체적 감각, 무드 또는 정서로서 이해하는 입장이다. 즉, 감정은 신체의 내외부적 자극에 대한 몸의 반응이면서, 환경과 상황에 대한 신체적 느낌인 것이다(James 1984) 다마지오는 이러한 지각주의 감정론을 좀 더 세분화 하는데, 그에 따르면 외부로 드러나는 감정표현은 정서이고, 사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느낌이다(Damasio 1994). 정서는 외부로 표출되는 얼굴표정, 목소리, 행동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관찰되는 현상이고, 느낌은 심상내부에 있는 감정변화의 심리적 또는 신체적 변화이다. 정서든 느낌이든 간에, ‘지각주의’ 감정론에서는 감정을 신체적 변화(bodily changes)에 대한 지각이라는 점을 공통으로 전제한다. 달리 말해 감정은 신체화된 정신적 과정이며, 감각 기관을 통하여 사물/환경을 인식한 결과인 것이다. 철학분야에서 이러한 지각주의 감정론을 대표하는 학자는 제임스이며, 그는 감정을 신체적 느낌(bodily-feeling)으로 한정시켜 이해한다(James 1984, 189-90). 감정을 신체(body) 밖의 세계에 대한 지각이라기보다는 몸의 신체적 상태에 대한 지각으로 개념화 하는 것이다. 신체의 상태 변화를 유발한 외부의 자극(원인)은 있지만, 감정은 그 원인에 대한 지각이라기 보다는 그 결과로써 반응하는 신체적 변화에 대한 지각이며(De Sousa 2004), 따라서 감정은 세계에 대한 인식으로써 기능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각주의 감정론을 ‘비인지주의’라 칭하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감정을 ‘인지주의’적 시각으로 이해하는 시각도 물론 존재하며 이러한 입장은 감정 개념

지도의 다른 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감정이 단순한 신체적 느낌이 아니라 지식이나 평가적 사고로 이해된다. 물론 이와 같은 ‘인지주의’ 감정론 내부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감정이 곧 이성적 평가이자 이성적 신념/믿음이라고 여기는 강한 인지주의가 있으며(Walton 1978; Kenny 2003), 감정은 상황에 대한 해석이라고 말하는 로버츠(Roberts)같은 학자들도 있다(Roberts 1988; 2003). 이 가운데서도 인지주의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감정을 신체 밖의 세계나 타자에 대한 ‘판단’으로 이해하는 입장으로써 이를 흔히 ‘판단주의’라 칭한다. 이에 따르면 감정은 대상을 갖고 있으며, 그 대상에 대한 “지향성”(intentionality)을 내포한다(Solomon 1979; Nussbaum 2003).

이들은 지각주의 감정론자들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증한다. 같은 현상, 같은 세계, 같은 사물, 같은 행위자를 보더라도 인간은 서로 다른 감정이 갖게 되는데, 이는 그 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지향적 특성, 즉 상이한 명제적 판단과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감정이 단순히 신체적 느낌과 반응 그 이상의 인식이라는 것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명제적 내용이 곧 감정이며, 따라서 명제적 내용이나 명제적 태도가 없으면 감정도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요컨대 감정은 세상에 대한 명제적 인식의 한 유형인 것이다(Solomon 2004, 184-187).

인지주의 감정론의 이와 같은 논증이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여기에도 비판의 지점들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인지주의 감정론은 아래와 같은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감정을 대상에 대한 “명제적 판단”으로 규정할 경우, “동물이나 어린 아이의 감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들은 명제적 내용이 없거나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감정을 갖는다. “동물이 특정한 상황에서 위협을 느끼는 것”은 “그것이 위협이라는 개념(명제)을 가졌다는 것을 함축하지 않는다”(Deigh 1994, 840)라는 서술에서도 알 수 있듯, 어떤 행위자가 명제적 판단내용을 갖지 않았다 해서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이다. 더불어 인지판단의 한 종류로 여겨지는 감정이 왜 “유독 다른 판단들과는 달리 ‘신체적 느낌’을 동반하는 지”에 대한 대답 역시도 인지주의 감정론자들은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오성 2008, 307).

철학분야의 감정에 관한 개념적 논쟁은 사회학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감정을 인간의 신체에 기반한 보편생리적 현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신체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문화적 구성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감정의 기반 혹은 존재에 관한 이 질문에 대해, 한 편에서는 감정이 신체적 몸의 경험에 의존해야만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Thoits 1989; Robison 2004, 28-42). 신체 없는 감정은 존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감정, 국민감정과 같은 용어는 수사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다른 한쪽에서는 감정을 생물학적 몸에 기반한 생리적 반응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문화적으로 규정되는 사회행위자들의 인식이나 태도로 간주한다(Stearns and Turner 2009; 박형신·정수남 2009, 206-207). 따라서 전자는 지각주의적 감정론과 후자는 인지주의적 감정론과 각각 결을 같이 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러한 개념적, 존재론적 논쟁의 대립에서 벗어나 통합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감정의 신체적 기반을 인정하는 것이 곧 감정의 사회적 기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

불 필요가 있다. 국제정치적 예를 들어보자. 인간은 전쟁, 대량학살, 테러 등과 같은 거시적 정치현상을 “몸(신체감각)을 통해 ‘체험’하고 그에 수반된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것들(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유한다.” 따라서 감정은 모든 인간들이 ‘몸’을 통해 ‘느낀다’는 점에서 “보편적”이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처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기인한 “특수성”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몸과 사회적 두 측면은 감정에 함께 존재하며 따라서 둘 중에 어느 한 측면이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용채영·은용수 2017, 59).

감정의 존재에서 인간신체적 기반을 부정할 수 없으나, 감정을 단순히 내성적,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이해하게 된다면, “개인들의 감정적 표출이나 감정관리가 사회적 자극이나 제도에 의해 사회화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된다(용채영·은용수 2017, 60). 또한, 사회구성원들의 감정이 개인의 본질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인지 혹은 사회문화적 가치나 규범 등이 체화되어 정서적 반응으로 발현된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오히려 통합적인 접근이 감정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를 가능케 한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의 연구들은 철학, 뇌과학,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등 여러 분야의 통찰을 종합한 학제적 연구를 진행하면서 감정의 복합적 측면을 이해하려는 추세이며(Varela et al. 2017), 따라서 감정의 개념 역시도 통합적으로 정의하려는 경향을 띠고 있다(Hutchison and Bleiker 2014; Fierke 2012; Mercer 2010)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감정을 정의해보자. 감정은 세상에 대한 평가/인식이며, 따라서 대상성, 지향성이 내재되어 있고, 이것은 신체를 통해 구현되기에 신체적 반응/느낌을 수반한다. 바꾸어 말하면, 감정은 신체적 변화(bodily changes)를 수반하기에 신체 없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한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명제적 판단이 있어야 하며 이는 사회환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런 측면에서 감정은 신체적이지만 동시에 의미론적이다. 이를 제시 프린츠(Jesse Prinz)의 용어를 빌려 말하자면 감정은 일종의 “체화된 평가”(embodied appraisals)라고 정의할 수 있다(Prinz 2004, 57-58; Prinz 2006).⁵ 감정은 인지와 판단이 신체적 반응과 느낌으로 나타난 즉 “체현”된 것이며, 이때 평가나 인지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명제적 내용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언어화된 혹은 보편화된 가치판단명제의 형태를 띠 필요는 없다. 감정은 신체본능적이고 사회구성적 요소를 모두 갖고 있는 현상이다. 즉 감정은 외부 자극에 대한 몸의 신체적 반응이면서, 상황에 대한 느낌과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믿음과 인지적 측면을 함께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감정의 개념정의를 ‘인지주의적 지각론’라 칭한다.

⁵ 본 절에서 제시한 감정의 개념과 둘러싼 철학적 논쟁과 프린츠의 “체화된 평가”론에 대한 아이디어는 오성의 2008년 출간된 연구논문을 통해 얻게 되었고, 직감, 직감적 반응(“gut reaction”)으로 대표되는 프린츠의 최근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인지주의적 지각론’이라는 절충된 개념/용어를 새롭게 제안하고 있음을 부연설명한다.

III. IR의 감정이론화

지금까지의 논의들(감정과 이성의 ‘구별됨’이 아닌 ‘연결됨’에 관한 철학개념적 논증과 과학적 증거들)은 IR에서의 감정연구를 가로막고 있던 논거들이 타당한 기반에 놓여있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에 아래 절에서는 감정의 이론화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국제관계’라는 맥락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논문은 ‘인지주의적 지각론’에 기초하여 감정의 개념을 이해한다. 즉 여기서 감정은 세계나 타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지/판단의 한 종류이면서 동시에 신체에 기반한 정서적 반응으로 이해된다. 감정이 신체에 기반한다는 전제를 갖는 한, 국제정치에서 감정이론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고려될 수 있다. 첫째는 외교나 안보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인간 정치행위자(예컨대, 대통령이나 총리) 개개인의 감정을 그들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끼치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이 둘 사이의 인과적 연결고리(causal link)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감정과 이성의 구분이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가 인간의 판단과 추론의 영역에도 작동한다는 증거들은 이와 같은 작업의 중요성을 담보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문제는 일반화를 통한 이론설립이 매우 어렵다는데 있다. 개인들이 갖는 감정은 바로 그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또한 그들이 속한 시공간적 맥락에 따라서 매우 상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정책결정자 개개인의 감정과 그들이 결정한 특정한 정책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정추적(process tracing) 분석법과 인터뷰, 문헌분석, 운영코드분석(OCA) 등 외교정책결정론(Foreign Policy Analysis)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테크닉을 통해 파악해 볼 수는 있겠으나(은용수 2013), 결국 이것은 사후적 분석이며, 개별사례연구로 귀결되어 이론설립을 위한 일반화를 어렵게 한다. 즉, 감정을 외교정책결정자 개인의 정서적 운동으로 한정해서 접근하는 것은(그 자체로 개별사례의 특수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적공헌이 될 수 있으나) 정책결정자의 개인적 차이를 넘어 국가 전체 수준에서 작동하는 감정의 ‘일반적’인 인과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외교행위에 관한 예측력을 높이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국제정치적 맥락에서는 개인의 감정이 아닌 사회집단적 수준에서 발현되는 감정을 이론화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는 개개인의 차이를 넘어 사회/국가적 수준에서 동일한 혹은 매우 유사한 감정이 공유되어 감정의 집단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집단감정(collective emotion)이 정책결정자를 포함하는 개개인들의 행동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과연 집단감정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라는 질문일 것이다. 집단감정의 유발 메커니즘에 관한 명확한 이해는 IR에서의 감정이론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상식적 수준에서 생각해보자. 감정이 집단적으로 촉발될 수 있는 명시적 계기는 사회전체에(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도의 사건을 그 사회에 속한 다수의 개개인이 인지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예를 들어 보자면, 이는 다수의 시민 혹은 정부요인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공격, 자국이나 주변국이 관여된 전쟁이나 군사적 충돌, 집단난민사태, 대규모의 환경재

난이나 인명참사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사회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개인별로 느끼는 감정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시리아 난민 사태를 보고, 강한 동정심을 느끼고 후원이나 구호활동을 하는 개인이 있는가 하면, 동정심만 느끼고 후원이라는 행동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사람, 그리고 감정적 변화가 거의 없는 사람, 나아가 동정심이 아닌 경계심을 느끼는 사람까지, 동일한 거시사회적 사건/자극에 대한 감정적 반응은 개인마다 상이한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다시 앞서 언급한 감정이론화의 첫 번째 난관이었던 개별사례의 특수성에 봉착하게 된다.

그렇다면 역발상을 해보자. 집단감정의 이론화를 위해 개인들의 감정이 합쳐지는 과정이 아니라 개별적 감정이 ‘희석’되는 과정으로 이해의 초점을 옮겨보는 것이다. 집단감정은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감정들의 단순한 합이 아니다. 이러한 단순총합은 여전히 개개인들의 감정이 파편화된 채로 모여있는 상태이며, 따라서 결속력을 갖고 집단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인과적 요인으로 작동할 수 없다. 반대로 개인적 감정의 특이성이 소멸 혹은 약화되어 개인과 집단이 동일시될 때 비로소 감정의 결속력, 인과력(causal power)은 집단적 수준에서 확보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집단’감정 ‘이론화’의 핵심은 탈개인화(depersionalization)의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탈개인화가 클수록 개개인의 상이한 감정상태가 하나의 감정으로 모아지거나(convergence) 혹은 특정한 사건에 동일한 혹은 매우 유사한 감정이 동시에 발생하는 감정의 집단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달리 말해, 탈개인화와 감정의 집단화 사이에는 밀접한 양의 상관관계(positive correlation)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심리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의 연구와 이론들, 특히 “탈개인화 효과”(deindividuation effects)와 집단소속감의 상관성을 논증하는 경험적 연구들은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감정이론화를 시도하는 작업에도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익명성과 집단 소속감에 관해 연구하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탈개인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개인이 자신을 타자와 구별되는 “독특한(idiosyncratic) 개별적 존재”로 인식하기 보다는 “집단의 한 구성원”(a group member)으로서 인식하는 상태가 “탈개인화”다(Postmes and Spears 1998). 이런 상태에서 개인은 집단에 대한 소속감(느낌)이 강해지고, 집단 중심의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되며 집단규범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탈개인화가 발생하여 집단소속감이 증가되면, 자신이 속한 집단 자체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심리적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다수의 경험연구에 따르면, 탈개인화는 서로에 대한 개인정보가 적은 상태에서 자신과 타자가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인지하게 될 때(즉 개인적 익명성이 크면서 소속집단정보의 노출이 클 때) 쉽게 발생한다.⁶

⁶ 예를 들어, 서로를 모르는 대학생 50명을 무작위 방식을 통해 피실험자로 선발하고, 다시 무작위로 25명씩을 각각 A와 B그룹으로 나눈다. 그리고 A그룹에는 B그룹이 같은 학교임을 알려주고, B그룹에는 A그룹이 다른 학교 학생들이라고 알려준다. 이 경우 A와 B그룹에 속한 피실험자들은 평소 서로를 알지 못하는 관계였고 실험 당일 처음 본 상태였지만, A그룹은 B그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B그룹은 A그룹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경험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관련된 자세한 논의와 실험결과는 다음 문헌들 참조: Reicher et al. 1990; Lea et al. 2001; Postmes and Spears 2002; Lee 2007; Smith et al. 2007; Fischer and Manstead 2008; Seger et al. 2009.

물론 이러한 탈개인화가 “자동적으로” 혹은 “예외없이” 발생하여 소속 집단과 규범을 긍정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 개인은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과 개별적 주체로서의 개인 정체성(personal identity)을 모두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개인화된다는 것은 개인의 “자의식 ‘상실(loss)’이 아니라, 개인적 정체성보다는 사회적 정체성을 우선시하는 자의식의 ‘전환(shift)’”을 의미하는 것이다(Reicher et al. 1995, 124-134; Lee 2008). 그렇다면,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자의식의 “전환” 즉, 개인이 사회집단적 정체성으로서 외부세계나 타자를 인지하는 상태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 현격하게 발생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사회심리학의 자기 범주화 이론(self-categorization theory)과 사회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상기한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정체성은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나 사회적 범주(예를 들어, 인종, 국적, 성별, 종교, 경제계층, 정치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된다. 이에 비해 개인적 정체성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고유한 속성(예를 들어 취향, 습관, 태도, 성격, 외모)에 따라 구성된다(Turner et al. 1987; Reicher et al. 1995; Lea et al. 2001; Postmes and Spears 2002).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추론을 할 수 있다. 사회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범주들이 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표출’되어 작동할수록 개인은 사회적 정체성을 통해 자아와 세상을 인식하는 탈개인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사회적 정체성이 ‘표출’되어 작동한다는 전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형이상학적 존재인 정체성이 상징물(symbols)이나 서사(narratives)라는 시각적 형상물(이미지)로 재현되고 역사적 이야기로 매개되어 작동한다는 의미다. 달리 말해, 상징이나 서사로 ‘표출’된 정체성은 원래의 관념적 실체에서 ‘시공간을 점유’하는 실체로서 그 존재의 형식이 바뀌게 되면서 개개인으로 하여금 사회정체성을 감각적이고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앞서 논의한 개인의 자의식 “전환”을 촉발하게 되어 사회집단적 사고를 유도한다. 나아가 이러한 사회적 정체성의 ‘표출’이 일상화 돼 있거나 혹은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 급격히 현저해지면, 자의식의 “전환”은 자신이 속한 집단(내집단, in-group)과 그렇지 않은 집단(외집단, out-group)간의 차이/구별로 발현되고 이는 다시 감정의 집단화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탈개인화 효과”는 더 극대화 되고,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나 일체감이 증대하며 특정한 내외부의 사건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집단적으로 공유될 개연성이 크다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IR의 감정이론화에 적용해보자. 우선, IR에서 감정이론 설립을 위해서는 정책결정자 개개인의 감정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집단화(집단감정 발생을 유발하는 ‘일반화’된 메커니즘)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집단감정 메커니즘은 개개인의 감정의 단순총합이 아니라 개별적 감정이 ‘희석’되고 자의식이 “전환”되는 과정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것의 핵심은 “탈개인화”다. 탈개인화의 정도에 따라 감정의 집단화 정도 역시 달라진다. 탈개인화는 개인의 자의식 손실이 아니라 개인이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즉 집단정체성으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것이 촉발되거나 확대되는 경우는 집단정체성의 ‘표출’이 일상화되어 있거나 혹은 급격해질 때다. 달리 말해,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의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내집단 범주번호

(in-group category cue)가 상징물이나 서사를 통해 일상적으로 혹은 현격하게 표상화되는 상황에서 탈개인화-집단소속감의 증가-집단감정의 발생이라는 연결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⁷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내집단에 대한 동조행동이나 긍정적 평가와 감정(따라서 외집단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정적 인식)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심리적 경향이다.

물론, 이러한 추론이나 이론적 가정은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좀 더 세밀하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앞서 소개한 탈개인화 효과를 논증하는 연구들은 대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혹은 사회심리학에서 주로 진행되었으며, 이들의 연구는 하나의, 그리고 소규모의 특정집단에서 관찰되는 탈개인화 효과가 익명성과 집단정체성이라는 변수와 얼마나 큰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비교집단군의 인위적 구성을 통해 입증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두말할 나위 없이 한 국가에는 다양한 개인만큼이나 다양한 사회집단이 존재한다. 사회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내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도, 사회의 다양한 집단마다 상이한 집단감정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그러므로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감정의 이론설립을 위해서는 탈개인화와 함께 탈‘개별’집단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해지는 것은 국내의 다양한 이해집단들을 가로질러 공유되고 있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정체성 여부와 그것의 ‘표출 강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집단 간의 이질성(heterogeneity)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수 있는 국가정체성의 ‘표상적 활성화’ 정도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앞서 논의한 내집단과 외집단 간의 차이와 여기서 비롯되는 소속감 및 심리적 경향성을 자국과 타국 간의 관계로 확장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집단 간의 차이가 아닌, 타국과의 차이를 명시적으로 상기시키는 국내외의 상징적 사건이나(발화)행위의 여부 및 강도가 IR의 감정이론화에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개인 간, 그리고 집단 간에 존재하는 상이한 가치관을 넘어 사회 전체 수준에서 공유되고 있는 공통의 국가정체성 존재여부와 그것의 ‘표상적 활성화’ 정도가 IR 감정이론화에 있어서 핵심변수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집단감정과 연계된 행태를 예측하는 이론적 가정들을 아래와 같이 서술해 볼 수 있다. 우선 일반론적 차원의 기본가정(basic assumptions)들이다.

첫째, 사회적 폐쇄성과 집단구성의 단일성의 정도가 클수록 집단감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단일인종국가, 단일종교국가, 단일언어국가, 단일정당(정치이념) 국가일수록 개인들은 개인적 정체성이 아닌 사회집단적 정체성을 통해 세계와 주변환경을 인지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정체성을 재현하는 상징물들, 예를 들어 국기(national flag), 국가(national anthem), 국교(national religion) 혹은 해당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예를 들어 기념일, 기념관,

⁷ 여기서 주의 할 것은 이러한 메커니즘이 “자동적으로” 혹은 “예외없이” 발생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본고는 탈개인화를 통한 집단감정의 발생이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조건과 ‘현격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집단감정 이론설립에 일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지하듯, 이론설립을 위해서는 분석대상을 설명하는 인과적 기제(메커니즘)를 일반화된 형태로 서술하고,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조건(scope conditions)을 구체화하여 명제로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그리고 이것은 추후 다양한 경험적 연구(검증)를 통해 보완, 비판, 수정, 폐기될 수 있다. 더욱이 지금 단계에서(사회심리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의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된 메커니즘은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다시 보완되어야만 하며, 이는 후술에서 자세히 논할 것이다.

의무교육) 등이 일상적, 반복적, 장기적으로 등장하고 작동하는 사회일수록 집단감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자국과의 상이한 정체성을 갖는 타국이 자국의 정체성을 재현하는 상징물이나 서사를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언행을 구사할 때, 타국에 대해 부정적인 집단감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본가정들은 그 자체로도 집단감정 이론화에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역시 사실이다. 국제정치와의 직접적 연관성을 확보하고 이론으로서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좀 더 구체화된 전제들이 전술한 기본가정에 한번 더 접목될 필요가 있다.

우선, 한 국가의 ‘전체’수준에서 공유되고 있는 국가정체성은 하나(단수)가 아닌 복수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달리 말해, 국가정체성이 탈개인화와 탈-개별-집단화를 촉발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국가정체성은 다면적인 속성을 필연적으로 갖는다. 이는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범주가 하나가 아닌 것과 같은 논리다. 페미니즘 이론가인 크렌쇼(Crenshaw)에 의해 잘 알려진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이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젠더, 인종, 사회계급 등 다양한 측면이 상호교차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한 인간의 정체성이다(Crenshaw 1991). 마찬가지로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범주화)하는 것은 인종이 될 수도, 언어가 될 수도, 종교가 될 수도 있으며 혹은 특정한 정치이념이나 역사문화적 전통이 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들의 상호교차로 인해 국가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분석적’ 관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실은 국가정체성이 상호교차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범주들이 각각 발휘하는 범주력(즉 소속감을 환기시키고 결속력을 담보하는 능력)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것은 해당 국가/사회마다 상이하며 그들의 특수한 역사경험이나 처해 있는 시대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을 예로 들어보자.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민족과 한글, 동북아시아, 동양 등등 이 모든 범주가 ‘한국의 정체성’을 상호교차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듯, 이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집단결속력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인종을 범주화하는 민족정체성이다. 한국(인)이라는 기표와 한민족/단일민족이라는 기표가 상호교환적으로 즉각적 매칭을 이루는 것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요컨대 국가의 정체성은 다양한 범주들을 동반하지만 이들이 발휘하는 집단결속력은 결코 등가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이들 간의 차이가 ‘현격’할 수록 국가정체성의 ‘위계적’ 구조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위계적 구조에서 가장 상층에 자리하고 있는 정체성을 개념적으로 ‘우위(혹은 주인) 정체성’(superior or master identity)이라 칭해볼 수 있을 것이다.⁸

⁸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우위 정체성’이라는 용어는 자크 라캉,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롤랑 바르트 등에 영향을 받은 정신분석학과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주인기표”와 개념적 계를 같이한다. “주인기표”란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담론이나 텍스트의 “주요 참조점 혹은 공통분모”로써 “기표와 기의가 서로 상응하고 일치하도록” 만들고, “의미의 어긋난 이동(미끄러짐)을 멈춰 세우는 역할을 한다(바커·이재원 2014).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우위 정체성’이란 개념 역시도 개인이 세계를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주요 참조점”으로써 작동하며 그 정체성과 “미끄러

이는 개인이 자국의 정체성을 인식하거나 타국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혹은 가장 현격하게 작동하고 있는 ‘대표 인식명제’와 같은 역할을 하며 따라서 상호교차점에 머물고 있는 또 다른 범주에 속하는 정체성의 영향력을 압도하거나 감쇄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IR의 맥락에서 집단감정 형성 메커니즘을 좀 더 세밀하게 이해하고, 이를 이론화 하기 위해서는 ‘우위 정체성’에 주목해야 하고, 이를 고려해서 앞서 서술한 기본가정들(basic assumptions)을 좀 더 구체화된 이론적 가정/명제들(propositions)로 발전시켜 아래와 같이 도출해볼 수 있다.

첫째, 한 국가의 사회문화적 폐쇄성이 크고 ‘우위 정체성’과 매칭되는 상징물(symbols)이나 서사(narratives)가 일상적, 반복적, 장기적으로 등장될수록(즉, 우위 정체성의 ‘표상적 활성화’ 정도가 클수록) 그것을 동조하는 집단감정과 이에 조응하는 행동의 발생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더 높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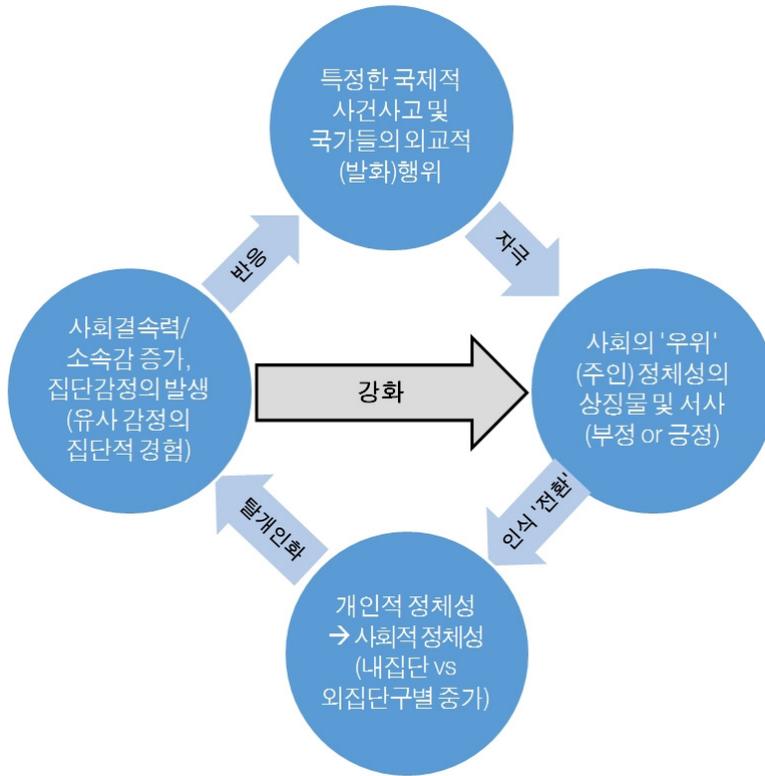
둘째, 자국의 ‘우위 정체성’의 상징물이나 서사를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발화)행위를 하는 타국에 대해 분노, 혐오와 같은 부정적인 집단감정과 이에 조응하는 행동의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셋째, 자국의 ‘우위 정체성’의 상징물이나 서사를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발화)행위를 하는 타국이 자국의 ‘우위 정체성’과 상이한 정체성을 갖는다면, 그 타국을 향한 부정적인 집단감정의 강도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클 것이다.

넷째, 다수의 개인이 국가정체성의 상징물이나 서사를 ‘집단적’으로 인지하게 되는 주된 경로는 방송, 신문, SNS 등의 매스미디어이며, 따라서 여기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정치사회적 자산을 확보한 행위자는 집단감정을 촉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행위자보다 더 클 것이다.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 관한 기왕의 개념적 논의를 빌려, 이런 행위자를 ‘집단감정 주창자’(collective emotion entrepreneur)로 개념화 할 수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써 집단감정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래 그림과 표는 지금까지의 이론적 논의를 개략적으로 정리 및 재구성한 것이다.

집” 없이 조응되는 감정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논문은 위계서열에 있는 정체성들 간에 ‘여전히’ 경쟁관계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전제하며, 나아가 하나의 특정한 정체성이 위계구조에서 최상위 자리에 위치해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재현되는 ‘수단’이나 그것을 재현하는 ‘행위자’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본 논문의 후반부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또한 위계적 서열은 시대에 따라 변동 가능한 것으로 상정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본고는 “주인”이라는 용어 대신 ‘우위’ 정체성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주인”이란 용어가 본고의 텍스트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구조주의 언어학(특히 라캉에 영향을 받은 언어기호학)에서 말하는 고정적/절대적 개념으로써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그림 1 | 국제정치 맥락에서 감정의 집단화 메커니즘



| 표 1 | 국제정치 맥락에서 집단감정에 관한 이론적 가정

개인감정	→ (전환 transition)	감정의 탈개인화(집단화)
개인적 정체성으로써 자아와 타자 및 외부환경을 인지하고 그에 수반되는 느낌을 갖는 상태		집단사회적 정체성으로써 자아와 타자 및 외부환경을 인지하고 그에 수반되는 느낌을 갖는 상태
전환에 용이한 조건 (transition facilitating conditions)		사회적 폐쇄성과 집단구성의 단일성의 정도가 큰 경우 (예: 단일인종국가, 단일종교국가, 단일언어국가, 단일정치이념국가) 국가정체성의 상징신호들이 반복적, 일상적, 장기적으로 등장하는 경우 (예: 국기, 국가, 국교, 기념일 등 해당 국가정체성의 상징, 서사, 혹은 재현프로젝트의 일상화)
이론적 가정(theoretical propositions)		
인과적 요인	자국 우위 정체성의 '표상적' 활성화 정도 자국의 우위 정체성에 대한 타국의 폄하 여부 및 직접적 관련성 정도 자국(내집단) vs. 타국(외집단)의 구별 정도	→ 집단감정의 발생(정도)
매개적 요인	집단감정 주창자(collective emotion entrepreneur)의 역할*	

*구체적 역할은 아래 절에서 논의

IV. 시사점과 남은 과제

이론설립이라는 지적작업은 다면적이고 다층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 모든 것을 소논문에서 전부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감정연구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과 협업을 통해 이뤄지길 희망한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IR을 포함하는 사회과학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감정연구, 특히 감정을 “이론적 잔여범주”로 취급했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철학적, 개념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나아가 IR 감정이론 설립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집단감정 유발 메커니즘에 대해 상세히 논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가정명제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본고는 인지주의적 시각론에 기초한 감정의 개념, 개인의 자의식 손실이 아닌 ‘전환’으로서의 “탈개인화” 과정, 국가정체성의 위계적 구조, 특히 우위(주인) 국가정체성의 역할, 그리고 그것이 상징물(symbols)이나 서사(narratives)를 통해 매개되면서 시각공간적 실체를 갖고 작동하는 표상적 활성화 등에 관한 이해를 강조하였다.

물론 남은 과제는 여전히 많다. 무엇보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이론적 명제들의 타당성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례들을 시기별, 국가별, 이슈영역별로 심층 비교분석을 시도하거나 혹은 전술한 인과적 요인들을 조작화/수량화하여 명제들 간의 상관관계를 통계분석으로 검증하는 시도 역시 필요해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이론적 명제들의 구체화 역시 남은 과제다. 예컨대,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상태가 특정 타국을 향해 집단화된다 하더라도, 반드시(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외교‘행위’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요컨대 집단감정과 행동간의 부조화(dissonance) 발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단감정과 행동 사이의 상관성을 높이거나(혹은 낮추는) 조건과 상황을 국내외 정치적 맥락에서 도출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집단감정과 행동 사이의 상관성 매트릭스에서 집권정당(즉 ‘집단감정 주창자’)의 정치적 위기의 발생 유무나 정도를 매개변수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들이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될 경우, 국민 전환으로써 타국에 대한 부정적 집단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고 이것은 집단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높인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타국에 대한 부정적 집단감정이 국내에서 강하게 발생했음에도 국제체제적 압력에 의해 그러한 집단감정이 외교정책행위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약소국인 경우 혹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의 힘의 정치(세력균형)의 갈등구조 내부에 머물러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집단감정과 외교정책행위 사이의 부조화(dissonance)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감정의 다양한 종류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부정적인 감정을 다뤘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에도 분노나 증오뿐만 아니라 두려움, 모욕감, 수치심 등 다양한 종류가 있기에 이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이해가 요구된다. 더불어 긍정적인 감정(예를 들어 기쁨, 공감, 존경 등등)의 집단화 메커니즘은 본 논문에서 거의 논의되지 못 했다. 물론 부정적 감정의 집단화 메커니즘을 역순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는 단순화나 순환논리의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나아가 ‘집단감정 주창자’의 영향력이 확대(혹은 축소)되는 조건과 상황을 구체화하여 검증해보는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전술했듯, 집단감정 주창자는 대중적 정보와 담론이 확산되고 유통되는 매스미디어 수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행위자이기 때문에 집단감정을 촉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의 역할은 독립변수로서가 아닌 매개변수로서 기능하는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사회 전체 수준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정은 근본적으로는 그 사회의 ‘우위 정체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주창자의 영향력은 전자의 활성화 정도 혹은 전자와 후자의 ‘조응’(corresponding) 정도에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감정주창자가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국가에 대한 특정한 집단감정을 유발시키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우위 정체성’이나 그것과 연계된 규범 등과 일치(조응)하지 않을 경우 그들의 영향력은 제한될 수 있다. 관련하여,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감정주창자들간의 경쟁은 개인 간 혹은 개별 집단간의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사회 ‘전체’ 수준에서의 집단감정 발생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형태, 집단감정 주창자의 리더십 유형, 개인적 카리스마, 대중의 지지도 등에 따라라도 감정주창자가 갖게 되는 영향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감정 연구는 국제정치에서 주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이들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해 볼 필요도 있다. IR에서 주권에 대한 통상적인 이해는 역사적으로는 유럽의 베스트팔렌조약 체결 이후를 중심으로, 개념적으로는 국가의 배타적 영토성과 내정의 불간섭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이를 기본으로 현대 국제정치에서 나타나는 주권국가들의 법적(형식적) 평등성과 실질적 불평등성 사이의 간극을 가져오는 원인이나 역학관계에 주목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Krasner 1999; 2001a; 2001b).⁹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에서 주권은 근대국가와 같이 ‘이미’ 형성된 정치적 집합체가 갖고 있는 권리로서 그 개념이 이해되고 따라서 사후적으로 그 특징이 일반화되며 이것은 다시 현대 국제정치의 현실사례와의 정합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주권 개념은 근대국가라는 정치조직 단위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해왔으며,¹⁰ 종교지도자, 영주, 군주, 왕, 시민 등 시대별 그리고 지역과 문명권별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실천돼온 결과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Abulafia 1999; Bartelson 1995). 따라서 베스트팔렌 체제 이후의 주권을 일반화하여 이해하기 보다는 해당 국가 혹은 지역문화권에서 포착되는 주권 형성의 과정을 “토착적” 맥락에서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¹¹ 바로 이 지점에서 집단감정의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이해가 주권연구와 접목될 수 있다. 집단감정의 발생은 국가의 주인정체성과 깊은 상관성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해당

⁹ 크레스너의 “조직된 위선”(organized hypocrisy) 주권론에 대한 비판적 논고는 Mozaffari 2001; Chowdhury and Duvall 2014 등 참조.

¹⁰ 예를 들어 유럽역사만 놓고 보더라도 주권이라는 용어(term)은 멀게는 플라톤의 *Republic*에서부터 등장하며, 영토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지배라는 주권의 핵심적 의미는 중세유럽 봉건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철학적으로는 16세기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론에서 그 정당성을 주창하고 있다.

¹¹ 이런 측면에서 로버트슨의 “토착적 주권론”은 주목할 만 하다. Robertson 2017 참조.

국가의 토착적 역사경험과 집단기억에 기반을 둔다. 예를 들어, 주인정체성은 해당 국가의 독립이나 주권형성 과정에서 겪은 집단적 역사경험, 특히 전쟁, 집단학살, (피)식민경험, 대규모 테러 등과 같은 트라우마적 집단경험과 집단기억으로부터 비롯되거나 혹은 그것에 의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Edkins 2003). 나아가 <그림 1. 감정의 집단화 메커니즘>이 보여주듯 집단감정은 내집단(자국)을 외집단(타국)과 구별하여 인식하고 느끼는 과정이며 이는 내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결속력의 강화로 이어지는 결과가 된다. 이것은 집단감정, 즉 유사한 감정의 집단적 경험이 정치적 ‘경계’(예컨대, 어디까지가 우리 시민/국가인가)를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기제가 됨을 의미한다. 정치적 경계를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 주권인가?’ ‘누가 주권을 행사하는가 혹은 누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답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집단감정은 주권연구에 중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남은 과제는 많고, 가야할 길은 멀다. 그럼에도 감정연구, 특히 감정의 이론적 연구와 이론화 작업은 철학, 심리학, 뇌신경과학, 사회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언어학, 민족지학, 정치학을 관통하는 학제적 접근이 가능하고 필요하다. IR의 학술적 진전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다. 나아가 감정연구는 현실의 국제정치 및 외교정책결정에 있어서 합리적 선택으로 이해되지 못했던 사건과 현상들을 예외적 사례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합리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유용한 가이드가 될 수도 있다. 아직까지 상당부분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감정연구는 그래서 앞으로 더욱 많은 주목과 탐구를 요한다.

참 고 문 헌

- 김선영. 2014. “데카르트에서 무의식: 몸과 기억을 중심으로.” 『철학논집』 39집 2호, 269-295.
- 김영례. 2013. “칸트철학에서 타자의 얼굴.” 『범한철학』 70집, 105-113.
- 김홍중. 2013. “사회적인 것의 합정성(合情性)을 찾아서: 사회 이론의 감정적 전환.” 『사회와 이론』 23집 2호, 7-48.
- 박형신·정수남. 2009. “거시적 감정사회학을 위하여.” 『사회와이론』 15집 2호, 195-234.
- 오성. 2008. “감정에 대한 인지주의 이론의 경계 짓기.” 『철학사상』 27집, 297-315.
- 용채영·은용수. 2017. “국제정치학(IR)의 감정연구: 비판적 검토와 이론적 제언.” 『국제정치논총』 제57집 3호, 51-86.
- 윤선구. 2004. 『데카르트 성찰』. 서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은용수. 2013. “심리/인지적 연구와 국제관계학.” 『국제정치논총』 53집 4호, 79-111.
- 이종주. 2015. “데카르트의 『제일철학에 대한 성찰』에서 초월론적 타자이론.” 『철학사상』 56집, 67-99.
- 제이슨 바커·이재원. 2014. “주인기표: 라캉-마오주의의 간략한 계보학.” 『문화과학』 77집, 319-338.
- Abulafia, David. 1999. *The New Cambridge Medieval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of Cambridge.
- Ariffin, Yohan, Jean-Marc Coicaud and Vesselin Popovski. eds. 2016. *Emotions in International Politics: Beyond Mainstream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ars, Bernard and Nicole Gage. 2010. *Cognition, brain, and consciousness: Introduction to cognitive neuroscience*. Oxford: Elsevier.
- Bartelson, Jens. 1995. *A Genealogy of Sovereign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chara, Antoine, Hanna Damasio, Antonio R. Damasio. 2000. “Emotion, Decision Making and the Orbitofrontal Cortex.” *Cerebral Cortex* 10(3): 295-307.
- Chowdhury, Arjun and Raymond Duvall. 2014. “Sovereignty and sovereign power.” *International Theory* 6(2): 191-223.
- Clough, Patricia Ticineto and Jean Halley. eds. 2007. *The affective turn: Theorizing the social*.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Collins, Randall. 1993. “Emotional Energy as the Common Denominator of Rational Action.” *Rationality and Society* 5(2): 203-230.
- Crenshaw, Kimberle. 1991. “Mapping the margins: Intersectionality, identity politics, and violence against women of color.” *Stanford law review* 43(6): 1241-1299.
- Damasio, Antonio. 1994. *Descartes Error: Emotion, Reason, and the Human Brain*. New York: Avon Books.
- De Sousa, Ronald. 2004. “Emotions: What I Know, What I'd Like to Think I Know, and What I'd Like to Think.” In *Thinking about Feeling: Contemporary Philosophers on Emotions* edited by Robert C. Solomon, 61-7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eigh, John. 1994. “Cognitivism in the Theory of Emotions.” *Ethics* 104(4): 824-854.

- Denzin, Norman. 1984. *On Understanding Emo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Edkins, Jenny. 2003. *Trauma and the Memory of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un, Yong-Soo. 2016. *Pluralism and Engagement in the Discipline of International Relations*. Singapore: Palgrave.
- Fierke, Karin M. 2012. *Political self-sacrifice: Agency, body and emo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scher, Agneta H. and Antony SR Manstead. 2008. "Social Functions of Emotion and Emotion Regulation." In *Handbook of Emotions* edited by Lisa Feldman Barrett, Michael Lewis, and Jeannette M. Haviland-Jones, 429-445.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Hochschild, Arlie Russell. 1983. *The Managed Hear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utchison, Emma and Bleiker Roland. 2014. "Theorizing emotions in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Theory* 6(3): 491-514;
- Illouz, Eva. 2004. *Saving the Modern Soul*.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ames, William. 1984. "What is an emotion?" *Mind* 9(34): 188-205.
- Jeffery, Renée. 2014. *Reason and emotion in international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hnston, Adrian and Catherine Malabou. 2013. *Self and Emotional Life: Philosophy, Psychoanalysis and Neuroscience*. Columbia: Columbia University Press.
- Kenny, Anthony. 2003. *Action, Emotion and Will*. London: Routledge.
- Krasner, Stephen. 1999. *Sovereignty Organized Hypocris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01a. "Organized Hypocrisy in Nineteenth-Century East Asia."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1(2): 173-197.
- _____. 2001b. *Problematic Sovereign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ea, Martin, Russell Spears and Daphne de Groot. 2001. "Knowing me, knowing you: Anonymity effects on social identity processes within grou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5): 526-537.
- Lee, Eun-Ju. 2007. "Deindividuation effects on group polarization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The role of group identification, public selfawareness and perceived argument quality." *Journal of Communication* 57: 385-403.
- _____. 2008. "Social Identity Model of Deindividuation Effects: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s," *Communication Theories* 4(1): 7-31.
- MacLean, Paul D. 1990. *The Triune Brain in Evolution*. New York: Springer.
- Matuszak, Jeremy and Matthew Parra. 2011. "That's Not My Child: A Case of Capgras Syndrome," *Psychiatric Times* 28(2): 1-3.
- Mercer, Jonathan. 2010. "Emotional Beliefs." *International Organization* 64(1): 1-31.
- Mozaffari, Mehdi. 2001. "The Transformationalist Perspective and the Rise of a Global Standard of Civilization."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1(2): 247-264.
- Noggle, Chad A., Raymond S. Dean, and Arthur MacNeill Horton, Jr. 2012. *The Encyclopedia of Neuropsychological Disorder*. New York: Springer.

- Nussbaum, Martha C. 2003. *Upheavals of thought: The intelligence of emo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stmes, Tom and Russell Spears. 1998. "Deindividuation and antinormative behavior: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3(3): 238-259.
- _____. 2002. "Behavior Online: Does Anonymous Computer Communication Reduce Gender Inequa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8): 1073-1083.
- Prinz, Jesse J. 2004. "Embodied Emotions." In *Thinking about Feeling: Contemporary Philosophers on Emotions* edited by Robert C. Solomon, 57-5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6. *Gut reactions: A perceptual theory of emo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eicher, Stephen D., Martin Lea and Stephen Lee. 1990. "De-individuation and group polarization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9(2): 121-134.
- Reicher, Stephen D., Russell Spears and Tom Postmes. 1995. "A social identity model of deindividuation phenomena."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6(1): 161-198.
- Roberts, Robert C. 1988. "What an emotion is: A sketch." *The Philosophical Review* 97(2): 183-209.
- _____. 2003. *Emotions: An essay in aid of moral psyc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bertson, Sean. 2017. "Thinking of the land in that way': indigenous sovereignty and the spatial politics of attentiveness at Skwelkek'welt." *Social and Cultural Geography* 18(2): 178-200.
- Robinson, Jenefer. 2004. "Emotion: Biological Fact or Social Construction?" In *Thinking about Feeling: Contemporary Philosophers on Emotions* edited by Robert C. Solomon, 28-4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eger, Charles R., Eliot R. Smith, and Diane M. Mackie. 2009. "Subtle activation of a social categorization triggers group-level emo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3): 460-467.
- Smith, Eliot R., Charles R. Seger and Diane M. Mackie. 2007. "Can emotions be truly group level? Evidence regarding four conceptual criteri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3): 431-446.
- Solomon, Robert C. 2004. *Thinking about Feeling: Contemporary Philosophers on Emo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76. *The passions: Emotions and the meaning of life*. New York: Hackett Publishing.
- Stearns, Peter N. and Jonathan H. Turner. 2009. "The Sociology of Emotions: Basic Theoretical Arguments." *Emotion Review* 1(4): 340-354.
- Takahashi, Hidehiko, Masato Matsuura, Michihiko Koeda, Noriaki Yahata, Tetsuya Suhara, Motoichiro Kato, and Yoshiro Okubo. 2008. "Brain Activations during Judgments of Positive Self-conscious Emotion and Positive Basic Emotion: Pride and Joy." *Cerebral Cortex* 18(4): 898-903.

- Thoits, Peggy A. 1989. "The Sociology of Emo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15: 317-342.
- Turner, John C., Michael A. Hogg, Penelope J. Oakes, Stephen D. Reicher and Margaret S. Wetherell.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Oxford: Basil Blackwell.
- Varela, Francisco J., Evan Thompson and Eleanor Rosch. 2017. *The embodied mind: Cognitive science and human experience*. Cambridge: MIT press.
- Walton, Kendall L. 1978. "Fearing fictions." *The Journal of Philosophy* 75(1): 5-27.

(Pre-)Theorizing Emotion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

How are collective emotions produced?

EUN, Yong-Soo (Hanyang University)

Abstract

I argue that IR needs to pay greater attention to the theorisation of emotion, and that a focus needs to be on having a rich understanding of the ‘generalisable’ mechanisms through which a state’s ‘collective emotions’ are triggered and produced. I posit that the generation of collective emotions is affected by whether and how much the symbols or symbolic cues of a ‘superior’(or ‘master’) national identity are manifested *visually* and *persistently* in our daily lives. Based on the forgoing discussions, I make three basic theoretical propositions and four IR-sensitive assumptions about when a state’s collective emotions are generated and how they are related to the state’s external actions. I end this article with discussion about what remaining challenges in emotion IR studies are and how to address them.

Key words: emotion, international relations(IR), theorisation, collective emotions, depersonalization, ‘Superior(master) identity, Visual representation of ‘superior(master) identity
